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

제32회 아산상 시상식이 2020년 11월 25일 서울 송파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 자리한 아산홀에서 열렸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올해는 6개 부문 12명(단체 포함)에게 총 7억7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인 아산상은 27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 병원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현지 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교육에 힘쓴 여혜화 베네딕도 수녀(73)가 수상했다. 여혜화 수녀는 현지 병원과 지역공동체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 여혜화 수녀가 소속된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대리 수상했다.

의료봉사상은 19년간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막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주민들을 치료하며 인술을 실천해온 민형래 원장(55)이 수상했다. 사회봉사상에는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우고 84년간 소외계층의 보금자리가 돼준 성모자애원이 선정됐다.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9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복지실천상은 김연희(51) 동명아동복지센터 사무국장과 박영덕(5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부센터장, 황덕경(5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센터장이 수상했다. 자원봉사상은 권혁기(67)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 부학장과 김옥이(61) 가위사랑봉사단 단장, 박진관(59) 보냉가설봉사단 단장이 수상했다.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김순래(72), 모마리(41), 진선남(62) 씨가 선정됐다.

대상인 아산상의 상금은 3억 원,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은 각각 1억 원,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은 각각 3천만 원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흥구·김종인·장정자·한승주·김유후·김명자·정진규·이승규·김태현·오연천·이병규·이봉주·최재성 아산재단 이사, 최종원 감사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 여혜화 베네딕도 수녀의 대리 수상자인 문현숙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수녀원 원장수녀, 의료봉사상 수상자 민형래 원장,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성모자애원 대표 곽지숙 수녀(왼쪽부터)가 함께했다.

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여혜화 수녀님의 한결 같은 봉사정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민형래 원장님은 2013년부터 사막지역에서 약 10만 명의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고 호스텔 기숙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고아, 노인, 장애인 같은 소외계층들의 안식처가 돼온 성모자애원 수녀님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가족 같은 배려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자들이 여유가 많아서 남들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재단은 올해부터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의 상금을 각각 2억 원으로 증액하고, 복지실천상과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의 수상 인원을 각 3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해 수상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